

'매력적인 캐릭터' 정경호, 교도관서 악역으로 변신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영화 '대무가')

경기도 광명에서 태어난 정경호는 부천 남초교·남중교·진성고교를 나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KBS 20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진출해 이듬해 싸이더스 HQ 기획으로 탄생한 연기자 5인조 그룹 '다섯개의 별의 멤버'로 데뷔했다.

그는 2004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동명의 모바일 드라마 '다섯개의 별'에 출연해 다른 4명의 멤버(유하준·정겨운·김형민·박기영)를 제치고 공효진의 연인으로 선택됐다.

공효진을 좋아하는 다섯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이 드라마에서 공효진과 맺어지는 인물로 5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같은 해 KBS2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최윤 역을 맡아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KBS1 '이여쁜 당신'(2005), MBC '개와 늑대의 시간'(2007), SBS '자



다가구주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명교'(2009), MBC '로드 넘버원'(2010)에서 주·조연을 오가며 출연했다.

특히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국가정보원 요원 역할로 캐릭터 변신을 시도했다. 개구쟁이 같지만 치열한 승부욕을 지닌 인물

민기를 연기하며 배우 이준기와 케미스트리를 발산, 드라마의 인기를 이끌었다.

SBS 드라마 '그대 웃어요'(2009)에선 특유의 패션 센스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자 패션의 정석이라 불리며 호감형 연기자로 거듭났다.

그러나 이후 출연한 JTBC '무정도시'(2013)와 '순정에 반하다'(2015)가 1%대의 저조한 시청률로 아쉬운 결과를 냈으며 MBC '미생나인'(2017) 또한 개연성 부족으로 시청자들의 혹평을 받기도 했다.

'미생나인'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무인도에 고립된 9명의 이야기로, 극 초반에는 미스터리·액션 장르답게 속도감 있는 전개와 공금증을 자아내며 호평 받았지만 진행될수록 개연성 없는 스토리로 비판 받았다.

영화에서도 활약했다. 스크린 데뷔작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2005) 253만명을 비롯해 '광식이 동생 광태'

(2005)로 202만명, '거북이 달린다'(2009)로 303만명의 관객을 모아 흥행배우로 불렸다. 하지만 '폭력씨클'(2006), '허브'(2007), '별빛 속으로'(2007), '맨홀'(2014) 등은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후 2017년 첫 방송된 신원호 PD 사단의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으로 제2 전성기를 맞았다. 정경호는 극중 교도관이자 스타 야구선수 제혁(박해수 분)의 동창 준호 역을 맡아 색다른 모습으로 인기를 끌었다. 제혁과 함께 진정한 교도관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호평받았다.

OCN '라이프 온 마스'(2018)에서는 극중 강력반 형사 태주를 연기했다. 2018년과 1998년을 오가는 설정 속에서 두뇌파 형사의 날카롭고 예민한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 냈다는 평이다.

2020년 정경호는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슬기로운 시리즈의 전작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신원호 PD와 약 3년 만에 재회했다.

흥부와교 교수 김준원 역으로, 능력 좋고 까칠하지만 여자친구 앞에서는 팔불출 순정남이 되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흥행에 일조했다.

한편 소녀시대 수영과 10년째 장수 연애하고 있는 정경호가 10월12일 영화 '대무가'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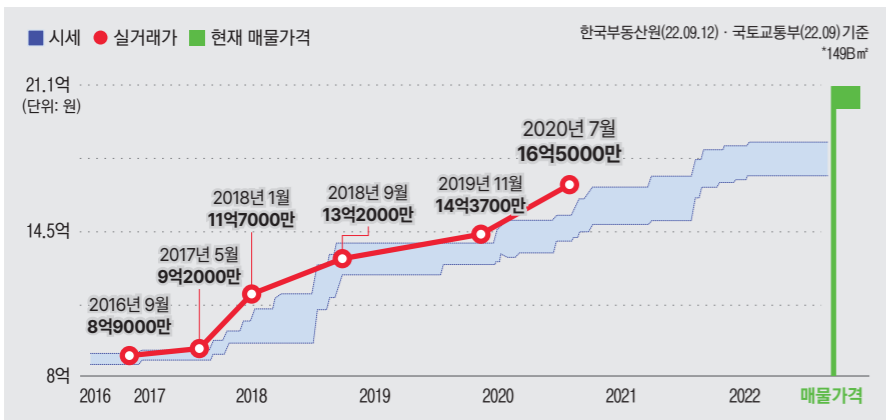
'대무가'는 신(神)뿔 떨어진 세 명의 무당들이 각자 일생일대의 한탕을 위해 프리스타일 굿판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역대급 빌런으로 변신하는 정경호는 굿판을 통해 50억원에 손에 넣으려는 극악무도한 악한 손의 수역을 맡아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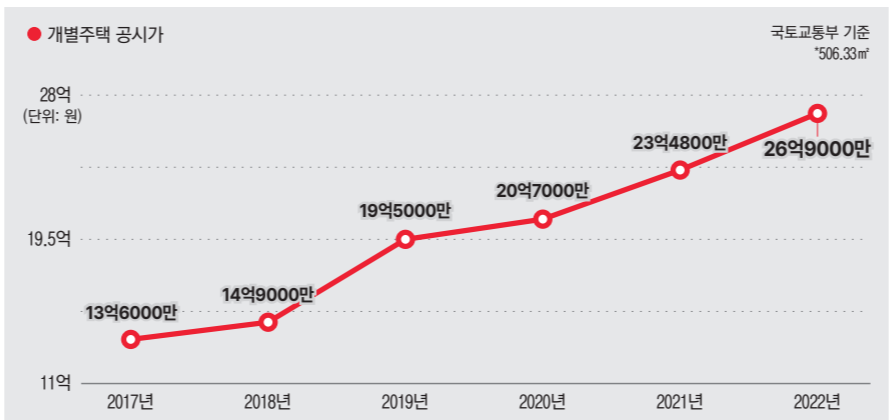
산운6단지유면시아신동아파밀리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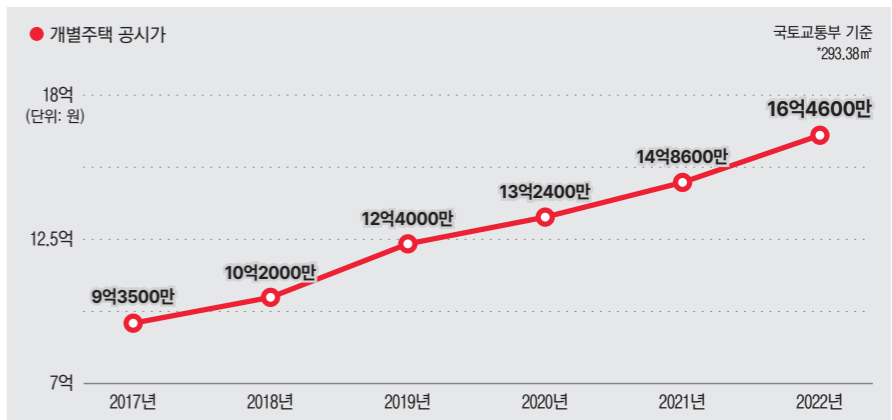
단독주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단독주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이화원 전기야타이거즈 대표이사 부사장



이화원 전 기아 타이거즈 대표이사 부사장은 강릉고를 나와 강릉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현대기아자동차 홍보기획팀장, 기아자동차 홍보1팀장 및 이사, 현대기아자동차 신촌홍보팀장, 기아자동차 홍보1실장, 현대모비스 홍보실장 등을 지낸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다. 2019년 3월 기아는 현대모비스 홍보실장(전무이사)을 맡고 있던 그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기아 타이거즈 신인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당시 KBO

리그 하위권의 기아 타이거즈를 수렁에서 건져야 하는 중요 자리에 야구와 접점이 없는 그가 낙점되자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지난해 11월, 2021 KBO 정규리그에서 팀이 부진한 성격으로 9위로 마감하자 이전 부사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병갑



현)홀랄라 대표이사 회장 김병갑 홀랄라 대표이사 회장은 칼빈대 사회복지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20대 때 속옷 유통회사를 운영하다가 잘못된 하청계약으로 회사를 망했다. 사업 정리 후 단칸방으로 옮겨 전세금을 빼서 마련한 2000만원으로 닭고기 유통사업에 도전했다.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을 중심으로 닭고기를 납품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반적으로 익혔다. 김 회장은 소스와 조리기 개발에만 4년을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 끝에 치킨 프랜차이즈 '홀랄라참숯불

치킨'으로 수백개의 가맹점을 모아 사업을 키웠다. 그는 무엇보다 맛 개발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했다.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본사 연구개발(R&D)팀은 품질 좋은 식재료만을 엄선하고, 슬한 실험을 거쳐 최고의 맛을 찾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창업 초기부터 많은 자금을 투자해 제조와 유통, 물류도 직접 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펼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김경수



현)넥스트칩 대표이사 김경수 넥스트칩 대표이사는 서강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 IT벤처산업과정을 수료했다. 대우통신 수출부에서 근무한 뒤 케

총괄하는 자리에서 영업과 마케팅에 더욱 집중하며 기업을 키웠다. 2015년 4월에 블랙박스 제조업체 엔카네트(구 한테크놀로지)를 인수해 자동차 전자시스템, 블랙박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넥스트칩은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인식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올해 7월 넥스트칩을 코스닥에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부여 서부내륙권 관광산업 2곳 연말 준공

충청남도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및 기반 확충과 지속적인 관광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와 세종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부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나선 가운데 부여지역 2개 사업이 올해 말 준공한다.

충청남도는 부여지역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인 △백제역사나루옛길 △반산저수지수변공원 사업이 올해 말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백제역사나루옛길은 총사업비 141억 3000만원을 투입해 부여군 규암면 신리 일원 백마강 3.5km 구간 수륙양용버스 유람과 백제역사재현단지, 친수관광거점시설을 연계하고 관광객에게 하늘자전거, 정원열차, 전광대, 야간 조명 등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한다.

반산저수지 수변공원은 부여군 규암면 석우리 일원의 반산저수지를 중심으로 공원과 둘레길을 조성해 지역민과 관광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감도.

충청남도

객 등에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99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도는 2026년까지 나머지 도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준공한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진흥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도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공주(백제문화이음

길) △논산(산대역사문화촌,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호국문화체험단지) △금산(뿌리깊은인삼체험마을) △부여(백제역사나루옛길, 반산저수지수변공원) △청양(매운고추체험나라) △예산(에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덕산온천휴양마을) 등 모두 10건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1693억원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국도 59호선 지리산 삼장~금서 6km 개통

경상남도 산청군

국도교통부는 국도 59호선 중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삼장면에서 금서면까지 약 6.0km 구간을 새롭게 개설해 어제부터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산청IC와 지리산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리산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073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2016년 4월 착공한 이후 6년 5개월에 걸쳐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존 도로로는 급격한 굴곡 등으로 선형이 매우 불량했으며 장마철 잦은 비탈면 붕괴, 겨울철 결빙 등 위험 요소도 많아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사업으로 약 3.0km의 산청터널 등을 건설해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경사를 최소화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안전한 도로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터널 내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에



삼장면에서 금서면을 잇는 국도가 21일 개통됐다.

국도교통부

대비한 피난대피통로 및 각종 방재시설을 설치해 터널 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 외에도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20분에서 6분으로 줄어들고 운행거리는 12.9km에서 6.0km로 대폭 단축됐다. 이번 사업으로 천왕봉, 대원사, 중사 등 지리산권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 개최지인 동의보감촌 등 인근 관광지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관

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희관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개통으로 국도 59호선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지속 발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